

운동주의 삶과 시를 보는 관점의 확대와 심화*

송희복**

|| 차례 ||

1. 실마리: 본 연구의 취지
2. 초기 개관: 고석규에서 마광수까지
3. 전기비평: 묘비명과 평전의 글쓰기
4. 생성·원전·본문에 관한 재인식
5. 일본인들의 관점, 일본과의 관계망
6. 읽기의 전문성: 이상섭과 권오만
7. 마무리: 앞으로의 과제

[국문초록]

본 연구는 운동주를 바라보는 연구사에 관한 논문이다. 글의 제재는 초기적인 개관의 양상에서부터, 전기비평의 전범인 『운동주 평전』에 대한 평가와, 생성·원전·본문에 관한 텍스트 비평의 재인식과, 일본인들의 관점 및 일본과의 관계망을 거쳐, 읽기의 전문성이라는 비평적 관점의 확대와 심화에 이르기까지 포함하고 있다. 운동주 비평 및 연구의 과제는 앞으로 단편적인 관점이 아닌, 총체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즉, 말하자면 작가·작품·독자의 관점에서 각각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작가의 관점에서는 정신분석학적인 비평이 매우 유효하다고 본다. 작품의 관점에서는 역사주의의 오류를 극복해야한다. 영미의 신비평가들이 이론적으로 마련해 널리 알려진 한 개념 틀로서 ‘의도의 오류(intentional fallacy)’라는 개념이 있다. 작가의 창작 의도를 비평가가 지나치게 금과옥조로 받아들이는 역사주의의 오류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운동주에 관한 비평 및 연구가 독자의 관점에서 심미적인 반응과 수용의 문제와 함께 확대되고 심화되어야 한다.

* 이 논문은 2016년도 진주교육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한 것임.

** 진주교육대학교 교수. hbsong@cue.ac.kr

주제어 : 운동주, 연구사, 전기비평, 텍스트 비평, 정신분석학, 역사주의, 의도의 오류, 총체적 관점.

1. 실마리: 본 연구의 취지

올해 2017년이 운동주의 탄생 백주년인 해여서 그에 관한 많은 학술 행사들이 실행되었고, 또 예정되어 있다. 운동주는 전문가들의 비평적인, 또한 연구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국민적인 관심사 속에서 조명을 받고 있는 시인이다. 시인 운동주의 삶과 시가 그 동안 어떻게 비평적인 조명 및 재조명을 거듭해 오면서 탄생 백주년인 되는 오늘에 이르렀는가 하는 점을 밝혀보는 것이 본 연구의 동기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1987년에도 연세대학교에서 ‘운동주 탄생 70주년 연구발표회’가 있었다. 그 당시에 연세대 조교수였던 김영민이 「운동주 연구의 성과와 과제-운동주 연구사의 평가 정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한 바 있었다. 그는 운동주의 유고 시집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서문(1948)을 장식한 정지용에서부터, 문학평론 「별 헤는 밤의 의미 공간」(현대문학 : 1987, 8)에 이르기까지 운동주에 관한 205편의 자료 목록을 작성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었다.¹⁾ 탄생 백주년인 되는 지금은 얼마나 될까? 1년에 15편을 누적해 간다면²⁾, 아마 지금은 600편 이상 상회하리라고 족히 추정된다.

운동주에 관한 비평과 연구의 전개는 크게 보아 작가론의 관점과 작품론의 관점으로 대별된다고 할 것이다. 운동주의 삶과 시 중에서 어느 것이 중요한가? 오늘날의 우리는 한 순간에 문득, 이렇게 불쑥 물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의 삶과 시는 우리에게 다 중요하다. 그에 관한 한 작가론과 작품론은, 그

1) 김영민, 「운동주 연구의 성과와 과제-운동주 연구사의 평가 정리」, 『문학과 의식』, 창간호, 1988, 42면, 참고.

2) 1987년 이전에 운동주에 관한 자료 편수가 15편 이상인 해는 세 해(1974, 1976, 1983)나 있었다. 1976년의 자료 편수는 20편으로 가장 많았다. 1988년 이후, 운동주에 관한 자료는 해마다 15편 이상 되었으리라고 추정된다.

래서 지금도 평행성을 그어가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체재(體裁)는 운동주를 바라보는 초기적인 개관의 양상, 전기비평의 전범이 된 송우혜의 『운동주 평전』에 대한 평가, 생성·원전·본문에 관한 텍스트 비평의 재인식, 일본인들의 관점 및 일본과의 관계망, 읽기의 전문성으로서의 이상섭과 권오만의 경우로 구성될 것이다. 필자는 이 과제들을 하나씩 밝혀 나아가려고 한다.

2. 초기 개관: 고석규에서 마광수까지

1987년까지의 연구사를 살펴보면, 운동주에 관한 자료는 회고문·비평문·논문으로 나누어진다. 초기에는 회고문이 많았다. 운동주와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논문은 후기로 갈수록 드문드문 보이지만, 그다지 많지 않았다. 앞서 말한 자료 편수 205편 중에서 대부분은 비평적인 글쓰기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앞으로 연구사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연구자가 있다면, 205편의 자료 가운데 다음의 경우는 반드시 간과할 수 없는 자료가 아닐까 생각한다.

운동주에 관한 최초의 본격적인 비평문은 고석규의 「운동주의 정신적 소묘」(1953)³⁾이다. 운동주의 정신세계를 고찰하려고 시도했던 점에선 일종의 작가론이라고 할 수 있다. 현학적인 한자 투의 어지러운 언어 선택이 눈에 거슬리게 하는 매우 주관적이며 인상적인 비평문이다.

그 무형하고 무성(無聲)한 울동을 인식함에 있어서 목숨의 상적(傷跡)이란 불사(不死)의 따뜻한 손짓이란……천체에의 심미(審美)는 끝내 결별의 조성이었다. 가장 신랄한 운명의 절선(切線)이었다. 그리고 영토(領土)의 울음이었다.⁴⁾

3) 고석규는 이 글을 1953년 9월 16일에 썼다고 밝히고 있다.

4) 고석규·김재섭, 『초극(超劇)』, 삼협문화사, 1954, 58-59면.

고석규는 운동주의 시편 「별 헤는 밤」을 두고 이렇게 비평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비평문의 언어는 요즈음의 그것과 사뭇 다르다. 그는 이 글에서 시인의 내면적인 갈등을 ‘내전(內戰)’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상황을 가리켜 ‘정경(情景)’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김열규의 「운동주론」(1964)은 『국어국문학』 지(誌) 제27호에 발표된 글인데, 국어국문학회 기관지라는 매체에 발표했다는 점에서, 일단은 최초의 논문이라고 하겠다. 운동주에 관한 글들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글은 연구자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특징을 지니는 것이다.

심리적 에너지가 후퇴했을 때 개아(個我)는 ‘오티즘(autism : 자폐증-인용자)’의 세계를 구조(構造)하고, 현실과의 객관적인 유대를 단절한 채 그 사고가 상징화(象徵化)에로 기울어지듯이 유아기에 퇴행하기도 하는 것이다.

인간의 생애 있어 가장 보호 받았던 존재이던 유아기에의 퇴행은 그 만큼 현실 생활의 파탄(破綻)을 의미하게 된다.⁵⁾

이 인용문에서 보듯이, 김열규는 운동주와 운동주 동시 유의 어린 화자를 동일시하고 있다. 물론 온당한 일은 아니겠지만, 시의 허구적인 장치를 아예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운동주의 시를 ‘운문으로 된, 잘 짜여진 일기 또는 수상(隨想)’⁶⁾ 정도로 여기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요컨대 김열규의 「운동주론」은 허구적인 장치의 작품성이 배제된 전형적인 작가론인 것이다.

1950년대에서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운동주의 지인들이 많이 생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고문이 적지 않았다. 앞으로는 운동주에 관한 회고담 유의 글들을 모아 자료집을 만들어두는 것도 후세의 연구자들을 위해 동시대인들이 뭔가를 의미 있게 남겨두는 일이 될 것이다. 운동주의 중학교와 전문학교 후배인 장덕순의 「인간 동주의 이모저모」(1969)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회고담이다. 특히 인용할 부분은 상당히 가치가 있는 증언이라고 하겠다.

5) 김열규, 「운동주론」, 『국어국문학』, 제27호, 1964, 106면.

6) 김홍규, 『문학과 역사적 인간』, 창작과비평사, 1980, 114면.

그는 교회에 나가는 일에 충실했다. 그렇다고 샤머니즘적인 광적 신자는 물론 아니었다. 이른바 멋쟁이 신자였다. 담배도, 맥주도 종종 입에 대는, 당시로서는 진보한 크리스찬이었다. (……) 속물다운 기독교적 냄새가 전혀 없는 신자였던 것이다. 이러한 여건이 그의 시를 조국과 영원에 일치시켰던 것이다.⁷⁾

그가 조국을 사랑하는 민족 시인으로 남게 되었던 이유에 관해, 장덕순은 운동주가 기독교 광신도가 아니었다는 데 두고 있다. 운동주의 기독교에 대한 경미한 거리감은 오히려 잃어버린 조국에 대한 사랑을 승화시킬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것이다.

김홍규의 「운동주론」(1974)은 문예계간지인 『창작과 비평』 1974년 가을호에 발표된 것. 당시에 계간지 중심의 문단으로 개편된 후에 한 유력한 매체에서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수준과 의식이 있는 독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비평문이기도 하다. 그는 김열규의 운동주관인 ‘유아기에로의 퇴행’ 운운하는 논조가 인상적으로 각인시킨 작가론으로부터 벗어나, 시와 현실과의 관계성인, 이를테면 시인의 현실적 대처 및 대응의 자세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비교적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논리를 전개하려고 했다. 김홍규는 심리주의의 관점이 아닌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운동주의 시 세계를 파악하려고 했던 것이다.

운동주의 시가 항일적인 저항시이기에 가치 있는 것은 아니며, 빼어난 서정성이나 미적 특질을 가져서 가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견해는 그릇된 것이거나, 적어도 부적절한 것이다. 운동주 시의 가치는 그가 ‘시대의 고뇌와 개인적 번민이 통일된 육체’로 느끼고 표현했다는 점에서 온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 체험을 역사적 국면의 경험으로 확장함으로써 한 시대의 삶과 의식을 노래하였고, 동시에 특정한 사회·문화적 상황 속에서의 체험을 인간의 항구적 문제들에 연결함으로써 보편적인 공감에 도달하였다.⁸⁾

7) 장덕순, 「인간 동주의 이모저모」, 『문우』, 제7호, 연세대 문과대, 1969, 144-145면.

8) 김홍규, 앞의 책, 156면.

김열규가 개인의 심리적인 상황 속에서 운동주의 시를 이해하려고 했다면, 김홍규는 사회문화적인 문맥 속에서 그의 시 세계를 확장하려는 시각의 폭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성격의 비평의 유형을 두고 흔히 사회문화적 비평이라고 한다. 이 비평은 문학 작품이 이를 생산한 환경이나 문화를 떠나서 진실되게 이해할 수 없다는 데서 시작한다. 사회문화적 비평가들은 모든 문학 작품이 사회문화적인 요인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 본다.⁹⁾ 김홍규의 경우도 여기에서 멀찍이 벗어난 것은 아니다.

한편 오세영의 「운동주의 시는 저항시인가」(1976)는 운동주관의 주요 쟁점 가운데 소수 의견에 손을 들어준 매우 특이한 비평문이다. 그는 운동주의 시를 모두 저항시로 보는 것은 착각이라고 주장했다.¹⁰⁾ 그는 운동주의를 저항시인으로 보는 것을 두고 그에 대한 인간적 편견에서 기인한 바, 소위 ‘의도의 오류’에서 온 일이라고 본다. 운동주의 시에서 말하는 ‘주어진 길’이란 것도 저항을 의미하기보다는 구도적인 자기 확립의 자세로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저항시는 시의 내용에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고, 또 여기에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부딪힘, 말하자면 참여·폭로·비판·선동·투쟁 등이 있어야 한다고, 그는 보고 있다.¹¹⁾ 그는 운동주의 시에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오세영은 문학사의 위상에 있어서도 1940년대의 대표적인 모더니스트 시인으로 평가돼야 하며, 심지어는 운동주가 「또 태초의 아침」에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보인 것¹²⁾처럼 때로 기독교의 이념을 거부한 시를 썼다고 주장했다.¹³⁾ 요컨대 오세영의 이러한 극단적인 소수 의견—운동주의 비(非)저항시와 반(反)기독교—은 향후 객관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운동주에 관한 최초의 박사논문(연세대)인 마광수의 「운동주 연구-그의

9) 이선영·권영민, 『문학비평론』, 한국방송통신대학, 1988, 147면, 참고.

10) 김영민, 앞의 글, 50-53면, 참고.

11) 오세영, 「운동주의 시는 저항시인가」, 문학사상, 1976, 4, 227면, 참고.

12) 같은 책, 229면, 참고.

13) 이러한 유의 주장은 오세영의 「운동주의 문학사적 위치」(현대문학, 1975, 4)에 이미 주장된 바가 있었다.

시에 나타난 상징적 표현을 중심으로」(1983)는 수사학적인 기술비평의 관점에서 연구의 방향을 튼 것이라고 하겠다. 윤동주 연구의 초석을 다진 논문으로 평가된다. 이 논문은 박사논문 지도교수 신동욱의 지도 아래 1983년 6월에 심사가 완료되었다. 그해 8월에 학위가 수여된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해당 논문은 이듬해인 1984년 2월 29일에 정음사에서 단행본으로 간행되었다.

마광수는 윤동주 시의 상징 표현의 유형을 대체로 다섯 가지로 보고 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①자연 표상으로서의 상징 표현, ②시대 및 역사 상황으로서의 상징 표현, ③독특한 내면 공간을 형성한 소외와 갈등의 상징 표현, ④이웃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소재로 하는 상징 표현, ⑤종교적 표상으로서의 상징 표현에 해당한다.¹⁴⁾

그는 결론적으로, 윤동주 시 세계의 특질을 세 가지의 관점에서 해명하고 있다. 형식상으로는 다소 모호한 표현을 통해 상상적 유추의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문시의 형태를 지향하고 있었고, 내용상으로는 실존적인 상황인식을 유발시킨 개인의 갈등과 고뇌는 자기 성찰과 기독교적 세계관에 의해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였으며, 마지막으로 문학사적으로는 일제 말 암흑기의 공백을 메우면서 모더니즘과 이미지즘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인 서정시의 영역을 개척할 수 있었다.¹⁵⁾

3. 전기비평: 묘비명과 평전의 글쓰기

청년 시인 윤동주의 할아버지인 윤하현은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에 사용할 비석을 미리 준비해 두고 있었는데, 이것을 먼저 떠나보낸 손자 윤동주의 비석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참척을 겪은 그의 할아버지가 먼저 보낸 손자의 비

14) 마광수, 『윤동주 연구-그의 시에 나타난 상징적 표현을 중심으로』, 정음사, 1984, 151-154면, 참고.

15) 같은 책, 155-158면, 참고.

석을 깎을 때 마음의 아픔이 얼마나 저렸는가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운동주의 장례식을 치를 때 운동주의 할아버지와 부모는 아무도 울지 않았다고 한다. 손아래 사람이 죽으면 곡하지 아니하고 울음을 참는다는 것이 당시 조선의 법도이기 때문이다.

운동주에 관한 전기적인 자료의 시초는 운동주의 묘비명으로부터 시작한다.

이 묘비는 해방되기 직전인 어느 여름날에 세운 것이지만 1945년 이래 역사의 격동기를 거치면서 수십 년 동안 버려진 채 방치되어 왔다. 이를 다시 발견한 이는 일본인 교수 오무라 마쓰오(大村益夫)였다. 그는 1985년에 와세다대학교 재외(在外) 연구원으로 중국 연변대학에 1년간 머물면서 현지 교수들의 도움을 받아 보살피는 사람들도 없이 40년간 방치해온 운동주의 묘와 묘비를 다시 발견한 것이다. 그가 귀국한 후에 이 발견의 과정을 소상하게 서술한 연구 보고서 「운동주의 사적(事蹟)에 대하여」를 『조선학보』(1986. 10)에 발표하기도 했다. 이때부터 운동주의 묘비명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운동주의 ‘묘비명(1945, 6. 14)’은 아버지 윤영석의 벗이요, 자신의 명동학교 스승이기도 한 김석관(金錫觀)이 짓고 썼다. 그는 명동학교 학감(1919~1922)을 역임했고, 한학에 정통했다. 호가 해사(海史)여서, 세상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해사 선생’이라고 일컬었다. 묘비명의 전반부는 운동주의 압축된 생애를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그 후반부는 그의 죽음에 대한 아쉬움과 감회를 주관적으로 드러내 놓고 있다. 후자의 원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詎意學海生波身失自由將螢雪之生涯化鳥籠之環境加之二豎不仁以一九四五年二月十六日長逝時年二十九材可用於當世詩將鳴於社會乃春風無情化而不實吁可惜也君夏鉉長老之令孫永錫先生之肖子敏而好學尤好新詩作品頗多其筆名童舟云¹⁶⁾

이 문장은 수사적인 표현의 자유로움과 빛남을 두고 볼 때 일종의 숨어있

16) 오오무라 마쓰오, 『운동주와 한국문학』, 소명출판, 2001, 29면, 재인.

는 명문이라고 할 수 있다. 치명적인 병고의 용태에 대한 관습적인 표현인 이른바 ‘이수불인(二豎不仁)’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한학적인 교양의 깊이를 가늠해 볼 수가 있다. 이 묘비명에 대한 국역본은 오무라 마쓰오와 송우혜의 책을 통해서도 충실히 참고할 수 있겠지만 인용자 윤희의 한 사례를 다시금 만들어 보았다.

어찌 뜻하였으랴. 배움의 바다에 파도가 일어 몸이 자유를 잃으면서 장차 배움에 힘써야 할 생애가 급변하여 새장에 갇힌 새의 환경이 되었고, 계다가 돌이킬 수 없는 병마져 더함으로써 1945년 2월 16일에 영원히 저 세상으로 되돌아가니 이때 나이는 스물아홉이었다. 그의 재목됨이 가히 당세에 쓰일 만하여 그의 시가 장차 사회에 공명할 만했는데, 봄바람이 무정하여 꽃을 피우고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니, 아아 애석하구나. 그대는 윤하현 장로의 손자요 운영석 선생의 아들이라서 명민하고 배우기를 즐기며 더욱이 신시를 좋아해 작품이 자못 많았다. 자신의 필명을 스스로 동주(童舟)라고 했다.

글쓴이인 김석관은 제자인 운동주의 묘비명을 아쉽고도 애뜻한 심정으로 하나하나 써 갔다. 이 비문의 행간에 슬픔의 감정이 물씬 배어있지만 또한 추스르고 절제하는 마음도 없지 않음이 확인된다. 그가 운동주의 필명이 ‘동주(童舟)’인 사실을 적시해내고 있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이때 동주란 ‘어린 배’ 혹은 ‘작은 배’를 말한다. 죽음의 저 세상으로 흘러들어가는 외로운 조각배. 운동주의 외로운 죽음을 고조하기 위해, 그는 운동주의 붓 이름을 굳이 들먹이고 있는 것이다.

이 묘비명에 운동주의 죽음 직후에 작성된 정확한 생애의 축도를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그때의 감정적인 상황이 직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신뢰할 만한 전기적인 자료이다. 다만 이 자료의 존재 여부가 새로 발견되고 공개되기까지 가족 외에는 아무도 몰랐다.

문학비평에 있어서의 전기비평은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창작 의도를 밝혀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온갖 정보를 찾아내는 일’ 17)의 하나이다. 평전은

17) 이선영 · 권영민, 앞의 책, 28면.

비평적인 전기라는 점에서 일반의 전기보다 한층 적극적인 개념이라고 할 것이다. 운동주에 관한 전기의 자료는 문익환의 「하늘·바람·별의 시인, 운동주」(1976)가 가장 정평이 나 있었다. 단행본 분량이 아닌 단편소설의 분량인 이 전기는 직업적인 전기 작가가 쓴 것이 아니라 지인이 쓴 회고담이라는 점에서 일장일단을 가지고 있다. 운동주의 많은 시들이 민족주의의 성향과 의식을 드러내는데, 그 이유는 은진중학에 재학하던 성장기의 교육 환경에서 찾을 수 있다.

이 학교에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분은 동양사와 국사, 또 한문을 가르치시던 명희조(明義朝)라는 선생이었다. 그 분은 동경제대에서 동양사를 전공하신 분인데 동경 유학 시절에 일본 사람에게 돈을 안 주려고 전차를 타지 않으시던 분이시다. 어느 방학 때엔가 용정(龍井)에서 고향인 평양으로 가는데 기차를 타지 않고 자전거로 갔다 오신 분, 보통으로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괴팍하면서도 철저한 애국자였다.¹⁸⁾

북간도의 용정에 소재한 은진중학교는 운동주가 잠시 다니던 모교이다. 역사 교사인 명희조는 소년 운동주에게 정신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다. 그 이전에는 자신의 외삼촌인 독립운동가·목사·교육자였던 김약연에게서 교화와 감화를 크게 받았었다. 명희조는 소년 운동주뿐만 아니라 송몽규와 문익환의 정신세계를 형성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운동주의 삶의 내력을 복원하고 그의 생애에 관해 비평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글쓰기의 유형은 ‘운동주 평전’이란 이름으로 단행본들이 나오곤 했다. 1980년대부터 운동주에 관한 전기비평은 주로 평전의 형식으로 기술되었다. 기술자는 운동주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견청의 것(1982)과 권일송의 것(1985)이 있었지만, 가장 체계적이고 평전에 걸맞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것은 송우혜의 것이라고 할 것 같다.

그는 1985년 초에 시인이면서 열음사 주간인 최하림으로부터 제안을 받았다. 북간도의 역사를 연구하고 있고, 또 운동주의 가족사와 연결되기 때문에

18) 문익환, 「하늘·바람·별의 시인, 운동주」, 『월간 중앙』, 1976, 4, 310면.

운동주 평전 쓰기의 적임자라는 것이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운동주 평전을 몇 년 후에 완성해 세상에 공간해 내놓았다.

송우혜의 『운동주 평전』 초간본은 1988년 10월 20일에 나왔다. 공식적으로 발간한 곳은 당시 열음사의 대표인 김수경의 주소지인 듯한 부산 동래구 낙민동이다.

평전은 문익환 목사의 모친인 김신목 여사로부터의 증언에서부터 시작한다.

인터뷰한 때를 1985년으로 본다면 이미 아흔이 되었을 연세다. 기억력에 관해서라면 충기가 대단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68년 전 운동주가 태어날 때 운동주의 사정을 이렇게 말했다.

곡물상들은 주로 백태만 사갔어. 그때 사람들이 백태를 심어 돈을 많이 벌었지. 그래서 좁은 땅 일구는 사람들이 넓은 땅을 사고, 작은 집에 살던 사람들이 크고 넓은 집을 지어 옮겼고……. 동주네도 그때 백태 농사로 꽤 재미를 보았지. 그 집이야 본래도 아주 넉넉한 가세(家勢)였지만 말야.¹⁹⁾

송우혜의 『운동주 평전』은 독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오랫동안 판을 거듭해 왔다. 비평가가 아닌 그가 소설가이어서 한층 독자들로부터 친근한 반응을 얻을 것이다. 평전에 관한 한, 서술적인 힘이 감동의 원천이 된다. 특히 송우혜는 운동주의 고종사촌인 송몽규와 혈맥이 연결된다. 그는 송몽규의 8촌의 딸이다. 평전 작가가 전혀 무연한 사람이 아니라는 데 그것의 강점이 있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이 책은 초판본이 간행된 후 정확히 3년 후에 일본어판으로 간행되기도 했다.

그 후, 제1차 개정판(1998)에는 1990년대 세계사적인 재편의 과정에서 냉전 상태의 종식이라는 정세 변화를 맞아 초간본에 다루지 못한 운동주의 친구 강제중을 수용하게 된다. 강제중은 해방기의 좌익 인사였지만 연전(延傳) 시절에 운동주의 막역한 벗이었고, 일본에서 보낸 운동주 5편의 시를 잘 보존

19) 송우혜, 『운동주 평전』, 열음사, 1988, 28면.

해 유고 시집에 보완을 했을 뿐만 아니라, 경향신문 기자로서 고인이 된 운동주의 시인됨을 선양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송우혜에게 ‘목에 걸린 가시처럼 아프게 남아 있던 존재’²⁰⁾였다. 윤일주와의 생전의 약속 등이 개운치 않은 부담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제1차 개정판에, 정치적인 해금과 함께 운동주와 정지용의 관계도 자연스레 복원되는 것도 필지의 사실이었다.

제2차 개정판(2004)에는 일본인 운동주 연구가 야나기하라 야스코(楊原泰子)에 의해 복원된 운동주의 동경 시절이 보완된다. 또 제3차 개정판(2012)에는 『운동주 평전』 글쓰기의 후일담을 새롭게 추가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이 책의 성격에 관한 쟁점에 대응하려는 의미에서 간행되었다.

……최근에 나온 논문들 중에서 본서에 기술된 내용 일부를 강하게 부정하는 새로운 학설을 내놓은 연구자들이 있었다. 운동주가 동시를 쓰게 된 계기와 창씨개명에 관련된 사실을 다루는 논문에서 그런 주장이 나왔다. 기존에는 없었던 전적으로 새로운 주장들인데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문제의 사안들을 정밀하게 고증하여 무엇이 진실인지를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제 그런 작업 결과를 담은 제3차 개정판을 출간한다.²¹⁾

사실은 운동주의 창씨개명은 알려져 있지 아니한 사실이었다. 그의 아킬레스건처럼 생각되기 쉬운데, 지금은 이를 문제 삼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러면 이 사실이 송우혜 자신이 노력한 결과의 산물인지는, 향후 제2와 제3차의 개정판이 가지는 텍스트 상호관련성을 밝혀보아야 한다.

1980년대에, 일제강점기의 주요 문인에 관한 평전으로 쌍벽을 이루는 것이 있다면, 김윤식의 『이광수와 그의 시대』(전3권 : 1986)와 송우혜의 『운동주 평전』(초간본 : 1988)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가 비평가적인 평전이라면, 후자는 작가적인 평전이라고 하겠다. 물론 후자가 독자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송우혜의 『운동주 평전』을 넘어설 평전이 나오려면, 평전 쓰기의 당사자는 정신분석적인 안목에서 대상자의 글을 심층적

20) 송우혜, 『운동주 평전』, 서정시학, 2014, 525면.

21) 같은 책, 제3차 개정판 머리말.

으로 분석하고 그 삶의 과정을 고양해야 하는 심화의 단계에까지 나아가야 한다. 김윤식의 경우처럼 말이다.

개인사적인 체험은 매우 중요한 문제의식이다. 여기에는 이광수가 살았던 식민지 시대의 심리적인 메커니즘으로 작용된 의미의 그물망을 형성한다. 우리에게 있어서 일제 강점기란 도대체 무엇일까? 김윤식은 이렇게 말한다. 그것은 정신사적인 차원에서 부(父)의식이 상실된 시대라고. 부의식의 상실은 다름 아니라 국권의 상실이 아닌가? 그에게 있어서의 국가 상실과 고아의식은 등가(等價)의 개념인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이광수에게 있어서의 고아의식은 이처럼 복잡하고도 미묘한 의미망을 형성하고 있다.²²⁾

송우혜 경우의 뚜렷한 미덕은 증언자들이 자연사로 사라져가는 시점에서 고귀한 증언을 많이 청취했다는 데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문익환 목사의 모친인 김신복 여사(1895~1990)였다. 명동촌 초기의 이민사를 매우 선명하고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는 증언자였다. 또, 소위 ‘재경도(在京都) 조선인유학생 민족주의 그룹 사건’의 한 사람인 고희옥 증언자의 소재를 파악해 그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증언을 이끌어낸 것도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다. 운동주의 아우인 윤일주조차도 고희옥이 누군가 궁금해 하면서 세상을 떠났다. 고희옥은 운동주를 가리켜 송몽규를 통해 교토 시내에서 서너 번 만나 식사를 같이할 정도였는데 조용한 미남형의 남자로 기억했으며, 송몽규에 관해선 온화하면서 침착하고, 한편으로는 정열적인 ‘창백한 인텔리’의 인상을 지닌, 민족주의적인 색채가 아주 농후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다.²³⁾ 요컨대, 송우혜의 『운동주 평전』은 20년 가까이 수정, 보완해 왔을 만큼 시인 운동주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삶을 체계적으로 복원하는 데 헌신해 왔다. 운동주에 관한 우리 시대의 전기비평으로는 일단 완벽을 기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세대에는 운동주의 내면풍경을 섬세하게 복원해야 한다고 본다.

22) 송희복, 『작가작품론의 실제』, 월인, 2014, 44-45면.

23) 송우혜, 앞의 책, 380-381, 참고.

4. 생성 · 원전 · 본문에 관한 재인식

텍스트에 관련된 비평은 전기비평과 마찬가지로 역사주의 비평에 해당한다. 하지만 전기비평이 작가를 중시하는 데 비해, 이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작품을 중시한다. 이를 가리켜 원전연구니, 본문비평이니, 텍스트 생성의 시학이니 하는 용어를 사용하곤 한다. 근래의 운동주 연구사에서 전환기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텍스트에 관련된 비평이라고 할 수 있다. 한때 유족이 소장하고 있던 운동주 육필 원고가 사진판 전집의 형태로 간행된 바 있었다. 편찬자는 왕신영, 심원섭, 오오무라 마스오(大村益夫), 윤인석이다. 책의 제목은 『사진판 운동주 자필 시고전집』이며, 1999년 민음사에서 냈다. 운동주 자필 시고(詩稿)의 범주는 이렇게 배열되고 있다.²⁴⁾

- (1) 첫 번째 원고노트 『나의 습작기의 시 아닌 시』 시 59편²⁵⁾
- (2) 두 번째 원고노트 『창(窓)』 시 53편
- (3) 산문집 산문 4편
- (4) 자필 자선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시 19편
- (5) 습유시 ① 일본 유학 이전 작품 시 10편
②일본 유학 시절 작품 시 5편²⁶⁾
- (6) 신문·잡지에 발표된 작품 스크랩 시 9편

이상과 같이 『사진판 운동주 자필 시고전집』은 사진으로 실물로 제시한 것 외에도 편찬자들의 교주(校註)가 매우 정성스러워 보인다. 이 시고의 전집이 공간되고 나서 그 의의를 살펴보자면, 운동주 시의 육필 원고가 모두 149편이지만, 중복을 제하면 총량이 119편임을 확정할 수 있다. 『사진판……』 이전에는 발표되지 않아 연구자들이 몰랐던 작품이 두 편 확인되고, 운동주가

24) 왕신영 외, 『사진판 운동주 자필 시고전집』, 민음사, 1999, 7면, 참고.

25) 1편은 제목만 있음.

26) 1편은 마지막 부분이 낙장되어 온전하지 못한 작품임.

평소에 고쳐 쓰기의 흔적을 많이 남기고 있음이 확인된다.²⁷⁾ 이를 두고 볼 때, 운동주는 시적 영감을 중시하는 천재형 시인이라기보다, 시작의 수련을 중시하는 노력형 시인이다.

『사진관……』 공간을 위한 결단과 노력은 서구의 이른바 생성비평을 연상시킨다. 이 개념은 다름이 아니라, 문학적 글쓰기의 행위 속에서 텍스트 형성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작가의 태도와 작품이 출현하는 것을 밝히는 범주의 비평이다. 전통적인 문헌학을 중시하면서도 문학 현상의 분석하는 새로운 관점을 도입한다고 한다.²⁸⁾ 무엇이 생성비평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가장 초보적인 대답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용어의 풀이가 가능하겠다.

생성에 관한 비평은 확실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출발해야 한다. (……) 점진적인 퇴고, 작가가 헌신한 창작 기간 동안 행해지는 변형, 예를 들면 자료나 정보의 수집·준비·개작, 수차례의 수정의 산물이다. 생성비평은 발생기 시점의 텍스트를 대상으로 삼는다.²⁹⁾

생성비평은 우리에게 매우 생소한 개념이다. 필자가 참고로 한 이론서인, 다니엘 베르제 등의 『문학비평방법론』(민혜숙 역본)에는 걸핏하면 ‘텍스트의 유전학’이란 표현이 나온다. 이에 관한 기초적인 말뜻의 해명도 없다. 문맥상의 의미를 짚어볼 때, 그것은 작가의 원고가 어떻게 변형되고 수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본(定本)으로 확정되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된 개념이 아닐까 싶다. 즉, 텍스트의 변이 체계에 관한 민감한 부분을 깊이 성찰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생성의 4단계는 대체로 보아 ①편집 이전의 초고 단계, ②편집 단계, ③출판 이전의 수고본 단계, ④출판 단계로 나누어진다. 운동주의 경우에 ①의 단계는 자신의 초고인 상태를 말한다. 두 가지 시작 노트는 일단 편집을 했다는 점에서 ②에 해당한다. 줄업을 앞두고 육필로 써서 세 부를 묶은 자선(自選)

27) 홍장학, 『운동주 시 다시 읽기』, 서강대 대학원, 2002, 144-145면, 참고.

28) 다니엘 베르제, 외, 민혜숙 옮김, 『문학비평방법론』, 동문선, 1997, 18면, 참고.

29) 같은 책, 15면.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1941)는 ③의 단계에 해당한다. ④의 출판된 단계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유고집으로 공간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1948)를 가리킨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윤동주가 살아생전에 활자본으로 발표한 작품들은 어디에 해당하느냐 하는 점이다. 특히 연희전문학교 학생들의 교우지인 『문우』 종간호(1941. 6)에 실린 두 편의 시 작품이 그렇다. 말하자면 「새로운 길」과 「우물 속의 자상화(自像畵)」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새로운 길」이나 「자화상」과 다르다. 이 두 편의 시가 어떻게 텍스트 변이의 과정을 겪어왔느냐 하는 것이 연구의 매우 중요한 소재일 수 있다.

소위 텍스트의 유전학을 두고 어떤 이는 ‘발생학적 비평’이라는 조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현대 비평의 중요한 의미가 내포된 개념이기도 한 그 조어는 우리 시대의 긴요한 비평적인 요청의 삼물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를테면 ‘완결된 결과보다는 창조 과정에, 닫힌 완성품보다는 ‘열린 작품’에, 작가의 의도보다는 독자에게 부여된 주도권에 더 민감한(……) 언어의 존재들’³⁰⁾에 대한 관심이 다름 아니라 발생학적 비평의 조건 내지 정체성이 아니겠는가 한다.

윤동주 시의 텍스트에 대한 관심의 여지는 남아있다. 홍장학에 의한 원전 연구 및 정본 확정의 작업이 이미 있었다. 『사진판 윤동주 자필 시고전집』이 홍장학의 『정본 윤동주 전집 원전연구』의 기본 자료가 되었고, 그럼으로써 윤동주 연구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 보였다.³¹⁾ 원전의 확정이 인문학 연구의 기본이자 출발점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윤동주 연구가 결과적으로 원전 확정의 기본적인 절차를 우회하여 온 것이다.³²⁾ 앞으로 그의 텍스트가 생성해온 과정에 대한 비평 담론이 지속되리라고 본다. 이본(異本)들 사이의 대조 연구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30) 장-이브 타디에 지음, 김정란 외 옮김, 문예출판사, 1995, 387면.

31) 김응교, 『시로 만나는 윤동주 : 처럼』, 문학동네, 2016, 485면, 참고.

32) 홍장학, 『정본 윤동주 전집 원전연구』, 문학과학사, 2004, 6면, 참고.

5. 일본인들의 관점, 일본과의 관계망

시인 운동주에 대한 관심을 가진 일본인들이 있었다. 먼저 얘기할 이는 운동주의 일본 모교이기도 한 도시사(同志社)대학 출신의 (훗날 일본 국회도서관 부관장을 역임한) 우지코 쓰요시(宇治郷毅)이다. 그는 한국어를 배우다 운동주의 시를 알게 되었다. 그는 1970년대 후반 한국을 방문해 운동주의 아우인 윤일주를 만나 친교를 맺었으며, 이 만남을 계기로 일본의 도서관에 있는 운동주의 재판 관련 자료(기록물)를 찾아 보내주기도 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운동주가 독립운동의 이력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가 한국 관련 글들을 적잖이 남긴 바 있었는데, 가장 주목을 요하는 것은 「운동주의 생애와 시(尹東柱の生涯と詩)」다. 운동주의 동경 생활에 쓴 「쉽게 찍어진 시」의 마지막 두 연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

彼はいかに今が暗澹とした状況にあっても、必ずがけてがるように、新しい時代の到来を予感している。今は暗闇が絶頂に達しているが、まさにこの時点で彼は恥多き自己を去り、再生を願う‘最後のわたし’であろうとした。そして最後連において、彼は長い試練と彷徨の過程をへて、最初の朝を迎える自己に憐憫をこめて‘最初の握手’をする。³³⁾

운동주는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예감하면서 간절하게 재생을 원하는 ‘최후의 나’ 이기를 자임했고, 또 긴 시련과 방황의 과정을 거쳐 최초의 아침을 맞이할 자신에게 연민을 느끼면서 ‘최초의 악수’를 자행(自行)한다. 위의 인용문은 상당히 수준이 있는 해석이다.

오무라 마스오(大村益夫) 와세다대학 교수 시절인 1985년에 중국 길림성의 연변대학에 1년간 체류하면서 윤일주의 부탁을 받고 현지에서 수소문해 그 동안 보살핌도 없이 방치되어 있었던 운동주의 묘소를 마침내 찾아내기에

33) 宇治郷 毅, 『詩人尹東柱への旅』, 綠蔭書房, 2002, 41面.

이르렀다. 이를 계기로 그는 일본에서의 운동주 연구의 최고 권위자로 각광을 받았다. 그가 운동주의 고향에 머물다가 귀국한 후에 「운동주의 사적(事跡)에 대하여」(1986)를 발표한다. 운동주의 사적 중에서 연구상 가치가 있는 것은 묘나 묘소라기보다는 묘비명이다. 묘비명의 작성자는 김석관이다. 오무라는 그가 운동주의 외삼촌인 김약연이 세운 명동학교의 학감과 제2대 교장을 지낸 인물임을 밝혀낸다.³⁴⁾ 또 오무라는 윤일주가 작성한 운동주 연보와 묘비명의 차이점을 확인하기도 한다. 연보의 ‘대답자의 중국인 소학교 편입’과 ‘화룡(和龍) 현립 제일소학교 고등과 필입’이 그것이다.³⁵⁾ 전자보다 후자가 정확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 뿐만이 아니라, 광명학원 중학부 학적부에 의하면, 운동주가 생년월일이 실제 나이보다 정확히 1년이 늦은 ‘1918년(대정 7년) 12월 30일’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두고, 그는 음력이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에 운동주의 실제 출생이 1918년 2월 초가 아닐까 추정해 보기도 한다.³⁶⁾

그밖에도 오무라는 운동주가 연희전문 시절의 운동주는 프랑시스 잠의 번역시집 『밤의 노래』(미요시 다쓰지 역본)를 1940년 1월 31일에 구입해 읽었다는 사실을 밝힌 「운동주의 일본 체험」(1996), 운동주에 관한 북한의 시각을 처음으로 소개한 「운동주를 둘러싼 네 가지 문제」(1997), 사진판 원고 자료집 작성 경위에 대한 소상한 내력을 밝혀놓고 있는 「사진판 운동주 자필시고 전집 편찬 공간 작업을 둘러싸고」(1998), 초판본과 1990년도 판 비교하여 다섯 군데의 상위점을 주목하고 있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판본 비교 문제」(1993) 등을 내쳐 발표했다. 특히 ‘일이 마치고’와 ‘일을 마치고’의 차이에 관해 중요한 시사점을 남기기도 했다. ‘일이’는 ‘이리(이렇게)’의 뜻으로 해석된다는 것.³⁷⁾ 그리고 보니, 타당한 문맥이 바로 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물씬 전해진다.

우지고 쓰요시와 오무라 마스오 이후의 사람들이 운동주에 관한 글들을 묶

34) 오오무라 마스오, 앞의 책, 32면, 참고.

35) 같은 책, 31-32면, 참고.

36) 같은 책, 35면, 참고.

37) 같은 책, 135면, 참고.

어내었는데, 국역본은 민예당에서 간행한 『일본 지성인들이 사랑하는 운동주』(1998)이다. 이 책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된 것은 운동주 시의 일본어 번역에 관한 문제였다. 이부키 고(伊吹郷)의 역본(1984)은 「서시」에서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해야지’를 ‘삶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을 사랑해야지’로 번역하였는데, 이것은 일본인의 의식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하나의 표현으로서, 『고금화가집(古今和歌集)』에 반영된 특정의 성구(成句)에 기인한다.³⁸⁾ 또 모리타 스스무(森田進) 역본(1998)이 「서시」에서의 ‘하늘’을 ‘소라(空)로서의 하늘’을 ‘아마(天)로서의 하늘’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유에 관해 동양적 윤리관과 한국적으로 토착화한 기독교의 융합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정도의 견해도 제시되어 있다.³⁹⁾

운동주가 일본인에게 명료한 인상으로 남겨진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이는 전후 일본의 대표적인 여성시인으로 잘 알려진 이바라기 노리코(茨木のり子)이다. 그의 산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일본 검인정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도 실려 있다. 그는 여기에서 운동주가 유학생 시절에 접한 일본 시인 다치하라 미치조(入原道造)에 착목해 두 사람의 시인을 비교하기에 이른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다치하라의 시가 음악과 같아서 의미의 무게가 실려 있지 않지만, 한편 운동주의 경우는 핵(核)이랄까, 심(芯)란 것이 들어 있어 응집력이 보이고, 또 숨은 의미도 무게와 깊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つぶさにみればずいぶん違う。立原道造の詩は音楽のようで、意味に重きがおかれ っていない。一方、尹東柱の詩は、核といつか芯がありたえずそこへ集約されてゆき、隠された意味 も重く深い。⁴⁰⁾

다치하라와 운동주의 차이에 관한 이러한 유의 견해는 한국인 연구자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38) 이누가이 미츠히로 외, 고계영 옮김, 『일본 지성인들이 사랑하는 운동주』, 민예당, 1998, 134-135면, 참고.

39) 같은 책, 58면, 참고.

40) 茨木のり子, 『ハングルの旅』, 朝日新聞社版, 1989, 249면.

왕신영의 박사학위 논문인 「윤동주와 일본의 지적 풍토」(2006)에서는 다치하라 미치조가 시의 형식에 대한 결백에 가까운 집착을 보임으로써 미의 식으로 환치된 존재의 양식화에 머물렀지만⁴¹⁾ 윤동주의 경우는 또 다른 차원을 열었다고 보고 있다.

윤동주는 그의 시형식뿐만 아니라 자신의 미의식의 양식화에도 그다지 큰 관심을 두지 않은 듯하다. 따라서 그가 릴케에게서 얻고자 한 것은 시인의 삶과 문학에 대한 태도를 통한 사유의 깊이였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다치하라 미치조는 릴케의 사유적인 측면을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그 영향이 구체적으로는 소네트라는 시 형식과 그를 통해 개별적인 체험을 의식화하고 보편화시키는 방법을 배우려고 했다.⁴²⁾

왕신영은 윤동주가 남긴 일본어 도서, 육필 원고, 스크랩 북 등을 활용하면서 일본의 반(反)파시스트 지식인에의 사상적인 경사에 주목하기도 했다. 그는 이 이유에 관해서 ‘본질적으로 소외자일 수밖에 없는 식민지 지식인 청년의 마이너리티 지식인에 대한 공감’⁴³⁾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동의하는 바이겠지만, 적어도 시 창작에 있어서는 윤동주의 반파시즘에의 사상적인 경도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독서와 메모 수준의 정도에서 사상적인 편력을 보인 것은 좌경화라기보다는 반일의 대리만족이 아닐까 한다.

6. 읽기의 전문성: 이상섭과 권오만

이상으로 보는 바와 같이, 그 동안 윤동주의 전기적인 정보가 발굴, 축적되

41) 왕신영, 「윤동주와 일본의 지적 풍토」, 고려대 대학원, 2006, 47면, 참고.

42) 같은 논문, 54면.

43) 같은 논문, 226면.

고, 또 텍스트에 관한 재인식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이것이 운동주를 바라보는 비평적 관점의 확대라면, 이상섭과 권오만의 경우는 그것이 심화된 양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상섭의 『운동주 자세히 읽기』(2007)는 형식주의 비평의 관점에서 이룩해 낸, 단행본 형태의 연구 결과이다. 그 자신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말의 뜻과 쓰임새’에 관한 관심을 운동주의 쪽으로 옮긴 것이다. 형식주의 비평이란, 언어의 질감과 형식의 조건을 강조하는 비평의 한 갈래라고 할 수 있다. 작품 그 자체의 자족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작가의 전기적 삶이나 창작 의도를 최대한 배제하려고 한다.

이상섭은 운동주의 시편 「소년」에 나오는 모두문 ‘여기저기서 단풍잎 같은 슬픈 가을이 똑똑 떨어진다’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일상언어로 말하면 ‘가을이 되어 여기저기서 단풍잎들이 여기저기서 똑똑 떨어진다’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가을이 원인이 되어 단풍잎들이 여기저기서 똑똑 떨어지는 결과가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가을이 되어 똑똑 떨어진다’고 하였으니 결과가 원인의 자리를 차지한 것, 즉 큰 전이가 생겼다. 똑똑 떨어지는 것은 본시 단풍잎인데 단풍잎을 일러 ‘가을’이라고 뒤집어 말했으니 ‘가을이 되어 똑똑 떨어지는 나뭇잎’이 ‘단풍잎 같은 가을’로 뒤집어지는 것이다.⁴⁴⁾

시의 언어는 전이가 아닌가? 의사 진술도 그렇고, 아이러니와 역설, 애매성 등이 그렇다. 나는 이 대목에서 운동주의 시적 언어가 전이에 만족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본다. 한 술 더 떠서 ‘역(逆)전이’로 나아갔다고 본다. 인과의 호응이 과학적인 추론의 과정이라면, 역전이는 시적 직관의 결과이다.

이상섭은 영미 신비평을 천착한 연구자답게 운동주 시적 언어의 ‘아이러니성(性)’에 주목을 한다. 물론 1970년대에 오세영 역시 운동주의 시로부터 ‘로맨틱 아이러니’를 지엽적으로 담론화한 적이 있지만, 이상섭은 운동주의 시 세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언어 조건으로 보면서, 무서운 아이러니, 비극적 아이러니, 착잡한 아이러니, 정치적 아이러니, 수사적 아이러니 등의 용어

44) 이상섭, 『운동주 자세히 읽기』, 한국문화사, 2007, 93면.

를 이끌어낸다.

이상섭은 윤동주 시 텍스트의 생성 과정도 주목한다. 앞서 밝혔듯이, 『문우』에 실린 「우물 속의 자상화」에서, 왜 자상화(自像畵)인가를 밝혀 놓으려고 했다. 이 역시 말의 뜻과 쓰임새에 대한 세심한 비평적 고려요, 배려라고 할 수 있다.

‘자상화’가 자기 모습을 그린 그림 자체를 말한다면, ‘자화상’은 그림에 나타나는 자기 모습을 말한다. 하나는 그림을, 다른 하나는 모습을 나타내니까, 하나가 보다 객관적이라면 다른 하나는 보다 주관적이라 하겠다.⁴⁵⁾

이상섭이 『윤동주 자세히 읽기』(한국문화사, 2007)에서 윤동주의 시에 관해 주목하고 있는 아이러니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나열된다. 윤동주의 작품 가운데 「팔복」 「위로」 「병원」을 무서운 아이러니, 「또 다른 고향」을 자아분열의 비극적 아이러니, 「간(肝)」을 착잡한 아이러니, 「참회록」을 정치적 아이러니, 「종시(終始)」를 수사적 아이러니와 역설이라고 이름하고 있다.

밤을 새워 짓는 개를 그는 ‘지조 높다’고 했는데, 개를 지사(志士)나 충성심의 상징이라고 엄숙하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다. 여기서 우리는 윤동주 특유의 아이러니를 아니 느낄 수 없다. 개는 개의 본성을 그대로 살려 밤이면 으레 짖어대니 타고난 ‘지조’를 지닌다고 할 수 있지만, 윤동주 자신은 본래의 순진을 버리고 고향을 등지려 한다는 사실을 그렇게 자조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하겠다.⁴⁶⁾

이상섭이 윤동주 시세계의 아이러니성에 관해 집착한 것은 그가 미국에서 신비평(뉴크리티시즘)을 공부한 바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의 저서인 『복합성의 시학—뉴 크리티시즘 연구』가 그 공부의 결과물이었다. 어쨌든, 미국

45) 같은 책, 134면.

46) 이상섭, 앞의 책, 182-183면.

의 신비평가로 이름이 높은 로벗 펜 워른이 특히 아이러니를 강조했다. 그는 뉴 크리티시즘 이론에 가장 충실한 비평가였다. 워른의 시론인 「순수한 시와 불순한 시」는 미국 신비평에서 고전적인 성격의 비평문으로 뚜렷이 남아 있다.

시의 리듬과 말의 리듬에 긴장이 있고……리듬의 형식성과 언어의 비형식성 사이에, 특수와 보편 사이에, 아주 단순한 은유의 요소 사이에, 예쁜 것과 미운 것 사이에, 관념들 사이에, 아이러니와 관련된 요소들 사이에 긴장이 있다.⁴⁷⁾

관념으로서의 시는 언제나 순수하다. 낭만주의 시인들은 순수한 사랑에 어울리는 낱말, 리듬, 심상들만을 골라서 썼다. 이상섭 역시 시어의 선택으로 순수시를 조성하려는 시인은 미숙하다고 보았다. 신비평가가 본 것처럼, 언어 형식의 한 조건으로서의 아이러니는 이상섭에게 있어서 시의 작품성, 시인의 성숙을 드러내는 지표이기도 할 것이다.⁴⁸⁾ 이 사실이야말로 또한 시인 운동주의 수월성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할 것이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스치고 지나갈 수 있는 이러한 형식론적인 문제를 치밀하게 접근하는 것이 형식주의 비평의 미덕이라고 하겠다. 문학비평의 기초 이론으로서 정평이 나 있는 텍스트인 『문학에 관한 비평적 접근의 입문서(A Handbook of Critical Approaches to Literature)』에 의하면, 문자 그대로, 형식주의 비평이란 문학 작품의 형식을 발견하고 해명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비평이어서, 작가의 생애, 그의 시대, 사회학적, 정치경제적, 혹은 심리적인 함축성이 갖든 문학 외적인 조건을 상대적으로 중시하지 않는다.

As its name suggests, ‘formalistic’ criticism has for its sole object the discovery and explanation of form in the literary work. This approach assumes the autonomy of the work itself and thus the relative unimportance of extra-literary consideration—the author’s life; his time;

47) 이상섭, 『복합성의 시학—뉴 크리티시즘 연구』, 민음사, 1987, 218면, 재인.

48) 같은 책, 216-218면, 참고.

sociological, political, economic, or psychological, implications.⁴⁹⁾

요컨대, 이상섭의 『운동주 자세히 읽기』는 운동주의 생애와 그의 시대, 사회과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어떤 외적 조건을 크게 중시하지 않고 언어형식의 내적인 질감을 중시하였다.

권오만의 『운동주 깊이 읽기』(2009)도 넓은 의미와 범주의 형식주의 비평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이상섭의 경우에 비해 형식주의적인 성격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다소간 종합론적인 안목을 지향하고 있다. 그 『운동주 깊이 읽기』는 책의 제목처럼 운동주 연구사의 심화 단계를 보여주는 성과물이다. 그는 운동주의 텍스트 그 자체에만 안주하지 않고, 오무라 마스오나 왕신영처럼 사회적인 배경과 시대적인 맥락의 콘텍스트성, 뿐만 아니라 소위 ‘매운 맛’을 매개로 한 이상과 운동주의 텍스트 상호관련성을 해명한 간(間) 텍스트성에도 ‘깊이 읽기’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운동주 시에서의 이상(李箱) 시의 영향」이 특히 주목되고 있다. 이 논문은 저서의 제1부 제3장에 속한다. 저서의 체재가 부와 장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이 논문은 다른 장과는 개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저서의 총 면수 464면 가운데 정확히 100면을 차지하는 방대한 개별 논문이다. 200자 원고지로 환산하면, 족히 500매가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과 운동주 사이에 영향의 주고받기를 다룬 「운동주 시에서의 이상 시의 영향」은 두 시인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일단 의표를 찌른 것으로 보인다. 두 시인을 비교한다는 발상 자체가 그리 쉽게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이 논문에서는 권오만이 운동주에게 끼친 이상 시 영향의 다섯 가지 유형을 분석하고 있다.

그 첫째는 ‘이상 시의 시구(詩句) 살려 쓰기’이다. 운동주의 시편 「못자는 밤」의 ‘하나, 둘, 셋, 네 / …… / 밤은 / 많기도 하다.’⁵⁰⁾는 이상의 시편 「아침」에 나오는 ‘밤은참많기도하더라.’를 모방, 차용했다는 것

49) Wilfred L. Guerin (etc.), 『A Handbook of Critical Approaches to Literature』, Harper & Row, Publishers, Inc., 1979, p. 70.

50) 홍장학, 『정본 운동주 전집 원전연구』, 앞의 책, 317~318면, 참고.

이다. 권오만은 이를 두고 ‘일체의 강압이 매우 혹독했었던 이른바 암흑기의 시인 운동주가 선배 시인 이상의 영향을 어떻게 강렬하게 받아들였던가를 증명하는 가장 생생한 자료로서 기능하는 점에서 각별한 주목을 받는다고’ 51) 주장했다. 둘째는 ‘반복 기법으로 매운 맛 살려 쓰기’이다. 공포의 상황을 13회에 걸친 집요한 반복의 수사법으로 그려낸 이상의 「오감도 시 제1호」와, 슬픔의 정서를 8회에 걸친 반복의 수사법으로 그려낸 운동주의 「팔복」 사이에 결정적인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본 것이다. 셋째는 ‘반영의 포에지로서의 성찰’이다. 비교의 대상인 텍스트는 이상의 「거울」과 운동주의 시편 「자화상」·「참회록」에 각각 나타난 시의 제재들, 즉 ‘거울 속’과, ‘우물 / 구리거울’이다. 운동주에게 있어서, 자아를 반영하는 정신과 방법이 이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지만, 이상이 개인의 자의식 차원에 머문 반면에 운동주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자아와 공동체 운명의 관련성을 집중적으로 그려낼 수 있었다.52) 넷째는 ‘의식 분열과 갈등의 극화’이다. 이상의 「오감도 시 제11호」와, 운동주의 「무서운 시간」·「또 다른 고향」·「간」을 서로 비교하면서 소위 텍스트 상호관련성을 확보한 개념이다.

운동주는 이상 시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이상 시의 의식의 갈등양상으로부터 분신들의 갈등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극화 수법을 터득해 낸 것이다. (……) 운동주의 시들은 분신들의 갈등을 극화하는 기법으로 그 자신의 고뇌하는 영혼을 그려내기에 이르렀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53)

마지막으로는 ‘매운 맛의 정신 살려 쓰기’에 관한 것이다. 이 개념은 이상 시의 영향이라고 할, 결과 속이 다른 (운동주의) 두 겹의 의미에 관한 비평적 담론인 것이다. 이 애깃거리는 이상과 운동주 시의 중층적인 의미 구조에서 파생된 언어와 역설에 관한 수사적 담론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한다.

운동주에게 끼친 이상 시 영향의 다섯 가지 유형에 관한 권오만의 가설은

51) 권오만, 『운동주 시 깊이 읽기』, 소명출판, 2009, 178면.

52) 같은 책, 197면 참고.

53) 같은 책, 215면.

매우 의욕적이다. 그만큼 윤동주의 시를 깊이 읽겠다는 의도의 소산인 듯하다. 그런데 이상과 윤동주의 텍스트 상호관련성에 아귀가 서로 딱 맞추어지는 것은 아니다. 비교할 수 있는 정보의 질량도 사실상 미흡해 보인다. 두 번째 유형에서 두 시인의 비교되는 시편들이 공통적으로 반복의 기법을 가졌다고 보이지 않는다. 동일한 언술을 되풀이하고 있는 윤동주의 「팔복」이 반복의 수사인 것은 사실이지만, 유사한 언술을 반복하고 있는 이상의 「오감도 시 제1호」는 반복의 수사라기보다 병렬의 기법으로 보아야 한다. 서로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다. 마지막의 유형도 그렇다. 이 경우에 윤동주에게 있어서 이상 시와의 관련성은 매우 경미하거나 표피적이다. 권오만 자신이 정확하고도 구체적인 맥락의 틀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그는 『윤동주 시 깊이 읽기』를 간행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시인 윤동주의 유족들과 인터뷰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윤동주 가족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기적인 재구성에도 완벽을 기하려고 했던 것이다. 송우혜의 『윤동주 평전』에는 면담자와의 대화록은 없었다. 이러한 글쓰기 형식은 송우혜의 간접화법식의 방식보다 한결 진일보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된다. 흥미와 신뢰성을 한결 부가한 느낌을 주고 있다.

7. 마무리: 앞으로의 과제

윤동주 비평 및 연구의 과제는 앞으로 단편적인 관점이 아닌, 총체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즉, 말하자면 작가·작품·독자의 관점에서 각각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작가의 관점에서는 정신분석학적인 비평이 매우 유효하다고 본다. 전통적인 표현론의 낭만주의적인 변용이 정신분석학적인 비평이다. 윤동주의 섬세한 내면풍경을 살뜰하게 재현·복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평전의 형식이 송우혜 이후에도 필요하다는 이유다. 최근에 정신과 의사인 이병욱이 간행한 『카우치에 누운 시인들의 삶과 노래』(학지사, 2015)를 상자하였

는데, 운동주가 한 장(章)을 차지하고 있지만 극히 소략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운동주의 시 「자화상」을 두고 ‘애증이 교차하는 양가적인 태도의 자기 성찰’로 보는 것⁵⁴⁾은 참신한 게 아니라 사실은 진부한 견해이다. 하지만 한 대학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정도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 운동주의 시를 임상적이고 정신분석적으로 해설을 시도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고 본다.

차세대의 운동주 평전은 정신분석학적인 정교함이 요청된다. 레온 에델은 전기(평전)를 ‘영혼의 연금술’로 비유하면서 전기 작가는 타인의 체험을 자신 속에 융합시키는 색다른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⁵⁵⁾ 평전의 가장 수준이 높은 방법론은 정신분석학 방법론이다. 마치 프로이트의 레오나르도 다 빈치에 관한 에세이 같은 것처럼 말이다.

헨리 8세의 평전을 쓴 한 전기 작가는 이런 말을 남긴 바 있었다. 당시의 심리로 돌아가는 것, 상상력과 직감력(直感力)을 구사하는 것, 생활을 암시하는 것—이것이 심리학적 역사가들의 과업이다.⁵⁶⁾ 운동주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송우혜는 운동주 지인들의 증언을 많이 반영했지만 그 나름대로 한계도 있다. 정신분석학적인 방법론에 근거한 차세대의 평전은 적어도 필자가 생각하기로 가장 주관적이면서, 동시에 가장 객관적일 수도 있다고 본다.

둘째, 작품의 관점에서는 역사주의의 오류를 극복해야 한다. 영미의 신비평가들이 이론적으로 마련해 널리 알려진 한 개념 틀로서 ‘의도의 오류(intentional fallacy)’라는 개념이 있다. 작가의 창작 의도를 비평가가 지나치게 금과옥조로 받아들이는 역사주의의 오류를 말한다. 운동주의 도덕적인 완전주의, 순결한 영성,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시적 정의에 지나치게 매료되고 도취되면 될수록 운동주 시의 참모습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수가 있다. 이를 위해 ‘의도의 오류’는 극복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운동주에 관한 비평 및 연구가 독자의 관점에서 확대되고 심

54) 이병욱, 『카우치에 누운 시인들의 삶과 노래』, 학지사, 2015, 340면 참고.

55) 레온 아델 지음, 김윤식 옮김 『작가론의 방법』, 삼영사, 1988, 28면 참고.

56) F. 브라운 편, 김수영 외 역, 『20세기문학평론』, 대문출판사, 1970, 280면.

화되어야 한다. 이상으로 말한 ‘의도의 오류’와 함께 또한 ‘감동의 오류’란 것도 있다. 작가의 창작 의도 못지않게 독자의 감동도 경계의 대상이 된다. 운동주의 시는 작가·작품과 상관없이 독자의 반응이나 심미적인 수용의 문제 등도 사뭇 긴요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그런데 독자 반응 비평의 입장에서 기술된 운동주에 관한 비평문과 논문을, 나는 단 한 번도 본 일이 없다. 운동주가 독자들로부터 애호를 받아 왔다면, 그 비평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심미적인 반응과 수용에 관한 문제의 제기도 반드시 필요불가결하다고 본다.

이처럼 이제 21세기의 운동주관은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프레임 속에서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운동주에 관한 비평적 관점이 더 확대되고 한층 심화되어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과제가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수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망된다.

[ABSTRACT]

Expansion and deepening of a critical viewpoint on Yun Dongju

Song Hui-bog
(Chi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is research is about a poet, Yun Dongju. This paper is dealt with the history of researches about him. The task of research and critic on Yun Dongju in the future should be dealt with comprehensive viewpoint, not with simple viewpoint. From the viewpoint of the poet, psychoanalytic critics would be valid.

From the viewpoint of the poems, it is needed to overcome errors originated from viewpoints of historicism. There is a term, 'intentional fallacy' which is a well known conceptual framework theoretically made by New-critics of American and English. It means errors of historicism in which critics take creative intension of authors as a golden rule strictly.

The last issue mentioned in this paper is that expansion and deepening of researches and critics on Yun Dongju would go together with aesthetic responses and problems of acceptance from the viewpoint of readers.

Key words : Yun Dongju, history of researches, intentional fallacy, historicism, psychoanalytic criticism, aesthetic response.

참고 문헌

□ 기본자료

왕신영 외, 『사진판 윤동주 자필 시고전집』, 민음사, 1999, 7면 참고.
홍장학, 『정본 윤동주 전집 원전연구』, 문학과지성사, 2004, 6면 참고.

□ 단행본

고석규 · 김재섭, 『초극(超劇)』, 삼협문화사, 1954, 58-59면.
김응교, 『시로 만나는 윤동주 : 처럼』, 문학동네, 2016, 485면 참고.
김홍규, 『문학과 역사적 인간』, 창작과비평사, 1980, 114면.
이병욱, 『카우치에 누운 시인들의 삶과 노래』, 학지사, 2015, 340면 참고.
이상섭, 『복합성의 시학-뉴 크리티시즘 연구』, 민음사, 1987, 218면 재인용.
이상섭, 『윤동주 자세히 읽기』, 한국문화사, 2007, 93면, 182-183면.
이선영 · 권영민, 『문학비평론』, 한국방송통신대학, 1988, 147면 참고.
송우혜, 『윤동주 평전』, 열음사, 1988, 28면.
송우혜, 『윤동주 평전』, 서정시학, 2014, 525면.
송희복, 『작가작품론의 실제』, 월인, 2014, 44-45면.
오오무라 마스오 『윤동주와 한국문학』, 소명출판, 2001, 32면 참고.
宇治郷 毅, 『詩人尹東柱への旅』, 綠蔭書房, 2002, 41面.
다니엘 베르제, 외, 민혜숙 옮김, 『문학비평방법론』, 동문선, 1997, 18면 참고.
레온 아델 지음, 김윤식 옮김 『작가론의 방법』, 삼영사, 1988, 28면 참고.
이누가이 미츠히로 외, 고계영 옮김, 『일본 지성인들이 사랑하는 윤동주』, 민예당, 1998, 134-135면 참고.
장-이브 타디에 지음, 김정란 외 옮김, 문예출판사, 1995, 387면.
F. 브라운 편, 김수영 외 역, 『20세기문학평론』, 대문출판사, 1970, 280면.
Wilfred L. Guerin (외), 『A Handbook of Critical Approaches to Literature』, Harper & Row, Publishers. Inc., 1979, p. 70 참고.

□ 논문 · 비평문

김영민, 「윤동주 연구의 성과와 과제-윤동주 연구사의 평가 정리」, 『문학과 의식』, 창간호, 1988, 42면, 참고.
김열규, 「윤동주론」, 『국어국문학』, 제27호, 1964, 106면.
마광수, 『윤동주 연구-그의 시에 나타난 상징적 표현을 중심으로』, 정음사, 1984,

151-154면, 참고.

문익환, 「하늘·바람·별의 시인, 운동주」, 『월간 중앙』, 1976, 4, 310면.

오세영, 「운동주의 시는 저항시인가」, 문학사상, 1976, 4, 227면 참고.

왕신영, 「운동주와 일본의 지적 풍토」, 고려대 대학원, 2006, 47면 참고.

장덕순, 「인간 동주의 이모저모」, 『문우』, 제7호, 연세대 문과대, 1969, 144-145면.

홍장학, 『운동주 시 다시 읽기』, 서강대 대학원, 2002, 144-145면 참고.

이 논문은 2017년 3월 13일 접수되어 4월 3일까지 심사받아 4월 10일 게재 확정됨.

